



# '수락산 봄꽃축제' 나눔의 한마당



쨍쨍, 영산홍, 벚꽃이 흐트러지게 핀 노원구 상계1동 수락산 등산로. 이곳에 위치한 노인시립 노인요양원 앞마당과 주변 일대에서 나눔의 수락산 봄꽃축제가 다채롭게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은 본지 나눔의 손잡기운동 캠페인과 연계해 4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화, 공연, 전시, 먹거리 마당을 연다.

봄꽃축제는 11시부터 등산객을 대상으로 단주제작,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소망등 및 천엽 염색수준, 질펀 만들기, 옷놀이 날뛰기 놀이, 페이스페인팅, 초상화 그리기, 풀잎공예, 도자기만들기 행사를 펼친다.

또 벚꽃, 꽃꽂이, 북한미술작품, 80여점의 전통등을 감상하고, 먹거리 마당에서 음식을 즐기며, 나눔운동에 동참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그 옆에는 나눔의 홍보코너가 마련돼 각종 복지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서울 시립요양원까지 900m꽃길에서 '나눔의 봄꽃축제'가 4월18일 열린다. 사진은 시립요양원과 주위에 핀 화려한 꽃의 모습.

## 진각복지재단, 본지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동참

### 18일 11~21시, 문화공연·전시·먹거리 마당 열여

시설 소개자료, 본지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 배포와 후원조직인 만월회 회원 및 수락산 시립노인요양원 자원봉사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수락산 노인요양원 가설무대에서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의 회합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오후 6시부터 펼쳐지는 본 공연 행사에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 홍보를 통한 사회적 메시지와 어린이들이 모금한 나눔의 손잡기 저금통이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전달된다. 또 소외지역 공연실황을 중계방송하고, 난타, 국악관현악, 사물놀이, 초청가수 공연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 문화축제를 개최해 불교문화를 홍보하고, 나눔의 사회적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봄꽃축제를 마련했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2)942-0144.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주요 프로그램		
11:00-18:00	단체작 소망등 등짐운명 천연염색 수순전 만들기 민속놀이 나눔의 스티커 배포	시립요양원 앞마당
11:00-18:00	꽃꽂이 북한그림 전통등 전시회	시립요양원 내
14:00-16:00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공연	가설무대
17:30-21:00	벚꽃전시회	수락산 등산로
18:00-20:00	난타, 국악관현악, 사물놀이, 초청가수 공연	가설무대

## 처남에게 간 기증



파주 약수암 류일우 불자

처남에게 간을 기증한 한 불자의 소식이 전해져 왔다. 자신의 장기를 이식해 준 주인공은 파주에 살고 있는 류일우 씨.

처남인 이호진 씨가 조직이 맞는 이를 찾지 못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류 씨의 조직이 일치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에 류 씨는 처남의 옆에 누워 함께 이식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류 씨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도 내 장기가 필요 하다면 기증했을 것"이라며 씩씩하게 웃었다.

류 씨는 파주 약수암에 다니는 독실한 불자다. 범교가 열릴 때마다 부인의 손을 잡고 법회에 동참해 왔다. 류 씨의 부인이 이숙 씨도 요양하고 있는 남편을 보살피면서도 틈틈이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서 고운 마음씨를 지녔다. 이숙자 씨는 "남편이 대견하고, 고맙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 노숙인 상담센터 후원자를 찾습니다

### 공간마련 자금 지원 절실

불교계 노숙인 지원 단체인 '홀리스의 친구들(운영위원장 윤 여진)'이 노숙인들을 위한 거리상담센터 건립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등포산업선교회, 구세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리상담센터(드림인센터)는 노숙인들에게 24시간 세탁, 목욕, 의료서비스,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홀리스의 친구들은 공간 마련에도 버겁다.

홀리스의 친구들은 서울 청량리의 주변 신실동, 보문동, 용두동, 제기동 등에 40여평 규모의 공간을 탐색하고 있지만, 보증금은 차지하고 월 임대료가 100~200만 원가량 들어 업무조차 못 낸다고 한다.

이주원 사무국장은 "운영비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해결이 가장 어렵다"며 "생명을 살리는 불사에 불자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 (02)924-1010 후원계좌 : 조흥은행 953-01-009468 예금주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 우리은행 131-04-112612 예금주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 **남동우 기자**

## 도와주께요

부산유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해홍 스님) 부설 옹호가정봉사원관센터는 재가노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식 후원자를 모집한다. 특식은 월 1회 실시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 결핍상태에 있는 독거노인가정세대에 방문 전달한다. (051)628-6737

## 나눔의 손잡기 동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극락사(주지 화담 스님) 저금통-30개 스티커-100장

충북 청원군 남이면 탄공정사(주지 범준 스님) 저금통-50개 스티커-50장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 저금통-100개 스티커-100장

경북 경산시 와촌면 범성사(주지 선덕 스님) 저금통-10개 스티커-20장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은혜사(주지 관오 스님) 저금통-10개 스티커-10장

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무념회(회장 김은자 보살) 저금통-30개 스티커-30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손혜숙님 저금통-5개 스티커-10장

##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나눔 저금통 분량입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량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장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 나눔의 가게

충남 보령시 동대동 수협뒤 꼬치음식점 투다리 017-372-4456

## 알립니다

### 나눔저금통 5월15일 1차 수거 현재 3천300여개 배포

현대불교신문사가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 일환으로 전국에 배포한 나눔저금통이 3천 300여개를 넘어섰습니다. 본사에서는 상반기에 분양된 나눔저금통을 5월 16일 1차로 수거합니다. 채우지 못한 저금통은 10월 10일까지 본사로 전달하거나 기부자 명의로 입금해 주십시오. 지역 사찰의 경우 신도들이 채워온 저금통을 함께 분해하여 기부자 명의로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또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됩니다. 상호와 업체, 주소, 전화번호를 본사에 꼭 알려주세요. 문의: (02) 722-4162-3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병영 기자, 김철우 기자

##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범불 및 세무 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의 종교적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현물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하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사찰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종 단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현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

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 \*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